

# 아쉽다 조구함 ... 한국 유도 첫 은메달

남자 100kg급 결승 일본 에런 울프에 연장 혈투 끝 한판패  
윤현지, 동메달 결정전에서 브라질 선수에 석패

한국 유도의 간판 조구함(29·KH그룹 필룩스·세계랭킹 6위)이 연장 혈투 끝에 아쉬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구함은 29일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일본 혼혈 선수 에런 울프(5위)와 골든스코어(연장전) 승부 끝에 통탄의 안다리 후리기를 허용해 한판패를 기록했다.  
조구함은 경기 시작 후 39초 만에 울프와 지도(반칙) 1개씩을 받았다.  
이후 힘 싸움을 하면서 정규시간 4분을 모두 보냈다.  
조구함은 처절하게 연장전을 펼쳤다. 연장전은 무제한으로 진행되며 절반 이상의 기술을 성공하거나 한 선수가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로 끝난다.  
조구함은 골든스코어 49초에 소극적인 공격을 펼쳤다는 이유로 두 번째 지도를 받았고, 울프는 골든스코어 1분 30초에 깃 잡기 반칙으로 역시 두 번째 지도를 기록했다.  
이후 두 선수는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힘 싸움을 펼쳤다.  
조구함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골든스코어 5분 35초에 통탄의 안다리후리기를 내주며 한판패를 기록했다.  
두 선수는 총 9분 35초 동안 경기를 치렀다.  
1992년 7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조구함은 우석초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고 대성중, 청석고를 거쳐 용인대에 진학했다.  
2018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2019 아부다비그랜드슬램 우승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며 해당

체급 강자로 이름을 날렸다.  
조구함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대회 개최를 3개월 앞두고 왼쪽 전방십자인대를 다치는 불운을 겪었다.  
그는 올림픽 출전을 강행한 끝에 16강에서 탈락했다.  
5년간 이를 간 조구함은 도쿄올림픽에서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못 넘었다.  
하지만 조구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유도 첫 은메달을 선물했다.  
한편 유도 대표팀 윤현지(27·안산시청)는 여자 7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브라질의 마이이라 아귀 아르에게 위누르기 한판으로 졌다.  
그는 경기 3분여를 남기고 특기인 배대뒤치기를 시도하다 상대 선수의 누르기 역공에 당했다. 끝까지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비록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지만, 메달 후보가 아니었던 세계랭킹 23위 윤현지는 이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었다.  
16강에서 세계랭킹 7위 나탈리 파월(영국)을 허벅다리 감아치기, 배대뒤치기로 절반 두 개를 묶어 한판승을 거뒀다.  
8강전에선 세계랭킹 5위 휘서 스테인하위스(네덜란드)를 골든스코어(연장전)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이번의 드라마는 준결승 무대에서 끝났다.  
그는 세계랭킹 1위인 프랑스의 마들렌 말롱가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반칙패로 무릎을 꿇으면서 동메달 결정전으로 내려왔다.



29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 경기에서 한국 조구함이 일본 에런 울프에게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스 센터에서 열린 수영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전. 대한민국 황선우가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영 황선우 아시아의 미래가 되다

자유형 100m 47초82 ... 아시아 선수 최고 5위

황선우(18·서울체고)가 아시아의 수영 미래를 밝히는 물살을 갈랐다.  
황선우가 29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스 센터에서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82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5위를 기록했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황선우는 한국 수영 선수 사상 처음으로 자유형 100m 결승 경기를 뒀다.  
그리고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일본의 스즈키 히로시(57초4)와 4위를 기록한 투루 고토(58초5)에 이어 69년 만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고인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의 결승 자체도 놀라운 일이다. 1956년 멜버른 대회에서 일본의 아쓰시 타니(58초·7위)를 끝으로 남자 100m 결승대에 선 아시아 선

수는 없었다.  
황선우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해 65년 만에 물살을 갈랐다.  
6번 레인에 선 황선우는 전날 준결승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수영황제' 케일럽 드레셀(미국·5레인)과 나란히 섰다. 7레인에서는 호주 카일 찰머스가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에도 반응 속도는 가장 빨랐다. 0.58초로 8명 중 유일하게 0.5초대를 기록한 황선우는 강자들 사이에서 역영을 펼치며 50m를 23초12, 6위로 돌았다.  
그리고 황선우에 앞서 50m를 찍었던 알렉산드로 미레시(이탈리아)를 따라잡고 47초82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5위에 자리했다.  
드레셀은 47초02의 올림픽 기록으로 예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찰머스는 47초08로 은메

달, 클리멘트 콜레스니코프(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는 47초44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황선우는 30일 오후 7시 12분 남자 자유형 50m 예선에 나선다. 그의 이번 대회 마지막 종목이다.  
매 경기 한국 수영의 역사를 갈아치우고 있는 황선우가 다시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자유형 200m 예선이 역사의 시작이었다.  
황선우는 1분44초62에 경기를 끝내며 한국신기록과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작성했다. 26일 준결승에서는 전체 6위(1분45초53)로 결승에 진출하며 남유선, 박태환에 이어 한국 수영 사상 세 번째로 올림픽 결승에서 뒀다.  
황선우는 27일 오전 진행된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50m까지 1위 질주를 하고도 아쉽게 7위로 첫 올림픽 첫 결승을 마무리했지만, 오후에 진행된 100m 자유형 예선에서 대회 두 번째 한국신기록(47초97)을 만들었다.

황선우는 28일 열린 준결승에서는 47초56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아시아 기록까지 바꾸었다.  
황선우는 기세를 이어 50m 벽에도 도전한다. 남자 50m 올림픽 자격 기록(OQT)인 A기준 기록은 22초 01초. 한국 신기록은 양재훈(23·강원도청)이 지난해 11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기록한 22초 16으로 A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황선우도 지난 5월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50m에서 22초 50에 그쳤다.  
하지만 B기준기록인 올림픽 선발 기록(OST)인 22초67은 넘어섰다. A 기준기록 통과자가 없으면 B기준기록을 충족한 1위 선수가 국제수영연맹(FINA)의 초청을 받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황선우가 50m 출전 자격을 얻었다.  
아직은 높은 50m의 벽, 황선우가 마지막 레이스에서 또 다른 역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 (30일)	
	오전 7시 30분 남자 2라운드 임성재, 김시우
	오전 9시 30분 여자 개인전 8강~결승
	오전 10시 남자 에메 단체전 박상재·권영준·마세건·송재호
	오전 11시 남자 100kg 이상급 32강 김민중 여자 78kg 이상급 한미진
	오후 7시 남자 자유형 50m 예선 황선우

자료/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 연합뉴스